

나주시, 복지사업 민간 위탁 지역 배제 논란

대부분 외지 법인에 운영맡겨
입소자 7명 뿐인 양로원에
한해 3억 지원 예산낭비 지적도
市 “조례 따라 모집...문제없다
지역법인 능력 낮아 탈락한 것”

나주시가 복지와 일자리창출 분야 민간 위탁과정에 지역 법인과 단체를 배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지역 법인과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노후나 경험 등의 이유로 타지역 법인에 위탁을 맡긴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복지사업 대부분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외지 법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현재 복지분야 위탁사업과 예산지원 현황은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서울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2억6600만원) ▲나주시 노인복지회관(광주 사회복지법인 광주 카톨릭 사회복지회·2억8700만원) ▲나주시 중부 노인복지관(서울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 복지재단·2억8700만원) ▲나주시 양로원(여수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3억900만원) ▲나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경남 산업기술진흥협인·5억원)이다.

민간 위탁 대부분 사업이 외지 법인이 맡아 하고 있고, 유일하게 나주 관내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나주시 노인요양원뿐이다. 나주시 노인요양원에 대한 시 예산지원은 한 푼도 없다.

이에 따라 지역 복지법인과 단체들의 반발도 크다. 외지 법인과 단체에 대부분 사업을 맡기다 보니,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을 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외지 법인이 맡아 올해 개원한 나주시 양로원은 대표적인 사례다.

나주시는 옛 아도면 남포리 부지 9024㎡에 사업비 16억9900만원을 들여 정원 60명 규모의 나주시 양로원을 조성했지만 지난 4월에 개원 후 입소자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

나주시 복지사업 민간위탁 현황 (운영 주체·연간 시 예산 지원)



▲나주시 양로원 (여수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3억900만원)



▲나주 직업훈련원 (경남 법인·6억4000만원)



▲나주 노인요양원 (나주 관내 법인·예산 지원 없음)

-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법인 불교태고종중앙회·2억6600만원)
- 나주시 노인복지회관 (광주 법인 카톨릭 사회복지회·2억8700만원)
-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 (서울 법인 장로교 복지재단·2억8700만원)
- 나주 다문화가족센터 (경남 산업기술진흥협인·5억원)

지 않고 있다. 입소 가능한 지역내 노인 인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외형만 키우다 보니 현재 입소자는 7명 안팎이다.

나주시는 이 양로원에 한해 3억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수용자도 없는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다.

또 일부 외부 단체는 이 같은 지적이 일자, 나주에 현지 법인을 낸 뒤 사업을 위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 훈련원도 비슷한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나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나주 직업훈련원도 경남지역 법인이 운영을 맡고 있고, 한해 사업비는 6억4000만원에 달한다.

나주시는 이 법인에 나주시 취업정보센터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도 맡겼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외지 법인에 민간위탁을 준 것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고 후 모집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지역법인은 사업에 따라 신청이 없거나 심사에서 적격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외지 법인이 노후나 경험이 풍부해 서류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선정했다”면서 “사업 성격이 비영리여서 지역에서는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나주시,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본격 착수

추진기획단 구성... 11월 중간보고

나주시가 지역의 자원과 특징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민선 6기 농정분야 시정방침인 ‘활력 있는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분야

별, 사업별로 수립했던 농업분야 기본 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맞는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정에서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 참여와 책임에 기반한 ‘지역중심 및 공동체 주도’의 농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역특성을 살린 차

별화된 전략 수립에 역점을 두게 된다.

시는 이와 같은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공무원·연구기관·농협·농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전남발전연구원과 지역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을 살린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추진기획단’ 구성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 사업별 통계 및 현황 조사, 주민실

문 및 정책 수요조사를 마친 후 전문가의 자문과 농업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농정분야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정한 후 11월 말까지 분야별 기존사업 보완 및 신규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11월말에 중간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재수렴해 반영한 후 12월 말까지 나주시 농정심의회와 전남도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사-목포대 협약 정보통신 분야 전문인력 공동 양성



목포대학교와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사가 손을 잡고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목포대와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인 (주)엠씨에스텍, (주)코리아퍼스텍은 지난 23일 목포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R&D)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최일 목포대 총장, 박순영 LINC사업단장, 목포대 본부 보직자와 (주)엠씨에스텍 우희탁 사장, 유경중 상무, (주)코리아퍼스텍 장영규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목포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엠씨에스텍, (주)코리아퍼스텍과 가족회사 관계를 맺고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통한 학업 우수 졸업생 취업 연계 상호지원을 비롯해 ▲산·학 공동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전문 기술인력 공동양성 ▲장비 및 시설의 상호활용 등을 통한 산·학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근로자 평생학습 교육,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 등 기술개발·교육에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첫 사업으로 목포대는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인력을 기업의 수요에 맞춰 2014년 2학기에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JAVA 프로그램 심화과정을 개설했다.

또한 비이공계인 경영대학생을 위주로 재무회계분야 전문 자격증과 ABAP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론 및 실습 과정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주)엠씨에스텍, (주)코리아퍼스텍 등에 겨울철 현장실습 과정도 실시해 현장감각도 익힐 계획이다.

한편 (주)엠씨에스텍과 (주)코리아퍼스텍은 한전KDN 협력사로 이번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전남지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채용해 공공기관 협력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화담마을 최우수상·연동마을 장려상

전남도 ‘행복마을 콘테스트’

나주시 2개 마을이 전남도 주최로 최근 목포대 플라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입상했다.



세지면 화담마을(대표 김병환·오른쪽)이 소득·체험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왕곡면 연동마을(대표 이신재)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전남도는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 시·군과 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통해 행복하고 활력있는 마을만들기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콘테스트를 마련했다. 경관·환경, 소득·

체험, 문화·복지, 시·군지원 등 4개 분야에 21개팀이 참가했다. 한편 최우수상을 수상한 세지면 화담마을은 2014년 11월말 대전시 중남대에서 열리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중앙 콘테스트’에 전남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이농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